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현을 시장, 국·소·단장 등 세종시 일제 출장... 예산편성 대응책 모색

익산시가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부처 예산편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8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국·소·단장, 사업부서장, 담당자 등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앞서 허진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장을 초청해 익산시 직원뿐만 아니라 세종청사에 파견된 전북자치도 소장들과 시군협력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지방자치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략회의는 부처단체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현황과 부처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세종시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전략회의 이후 국·소·단장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방문해 익산시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4~5월은 우리시 주요사업들의 중앙부처 반영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전략수립과 대응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지역의 근대역사를 즐길 수 있는 생생국가유산사업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운영을 시작한다.

근대문화역사 함께 즐겨요

익산시, 생생국가유산사업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운영

익산시가 지역의 근대역사를 즐길 수 있는 생생국가유산사업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운영을 시작한다.

생생국가유산사업은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정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이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철도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익산의 이야기를 이리열차에 담아 교육·문화·역사 체험 여행을 선보인다.

여행은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기차길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 △레트로 감성 영정봉터리 3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테마에 이리열차 퀘스트를 더해 색다른 관광을 선보인다.

퀘스트는 퀘스트(Quest)와 여행을 뜻하는 투어(Tour)의 합성어로 모바일

스태프를 이용해 문화역사 해설을 들 수 있는 생생국가유산사업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운영을 시작한다.

먼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은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생생한 근대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익산 슬리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익산역 일원을 거닐며 역사투어, 버스킹, 참나무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대 의상을 입고 추억의 상점&카페도 해볼 수 있다.

익산 슬리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방 이후 한국인의 생활사가 잘 남아있어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차길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는 슬리근대역사공간에서부터 춘포역까지 당일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의 '이리의 향기 렉처콘서트'가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관리기관 지정

수산특화·전문적 관리로 사업추진 가속화

군산시는 새만금수산업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별도로 조성하고 입주사업자 권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기관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재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로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업단지 관리 중이었다.

그러나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고 전문성 있는 단지 구축의 필요성이 되었고 이에 군산시를 최초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로 지정할 용도별 구역의 관리기

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군산시는 2019년부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해 온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조성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역 생산 수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입주기업 모집과 선도적인 수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근거와 추진 동력도 마련되었다.

앞으로, 시는 관리 기본 계획과 세부 지침 수립 후 4~5월 중 단지 내 민간 입주기업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식품단지 내 민간부지는 약 3만평 규모로 1000~3000평 규모의 일반분양 6개 업체, 장기임대 9개 업체 등

최대 15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품품 제조업(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수산업 특성상 해수(海水)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마른김 가공공장 등 관련 기업과 기관이 입주 대상이다.

다만 염료, 화학, 도축업종, 유해물질, 냄새 대량 발생 우려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군산시는 이 과정에서 유사 사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례를 검토·활용해 운영실적, 재정 능력, 사업 계획, 고용인원 등 정성·정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면밀한 입주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매출 10억원 돌파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매출 10억 원을 돌파하며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고령농에 제값 받는 농산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전자상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7억 3,000만원 대비 40.8% 증가한 약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것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가 불빛이 제철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된 것이 농산물 판매기획전, 온라인 쇼핑물 기획전, 농가

돕기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및 운영 체계 고도화의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해 소농·고령농의 농업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 안정을 도우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고도화(순회·수집, 일반택배) △가격 하락 농산물 기획전 △자연재해 발생 농가 돕기 △입장농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농가 어려움 해소 및 편의 증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소량 농산물은 익산시가 직접 순회·수집을 실시하고 대량 농산물은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유통 체계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배송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금강미래체험관 2024년 체험프로그램 본격 시작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따른 대응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의 2024년 체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그간 금강미래체험관은 2019년부터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능력과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초·중·고교생, 영유아 단체 및 일반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4월부터는 유·초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의 경우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물,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 5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중등 미래교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시된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 교원연수과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